

#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준공

### 군산 월명공원 내 호수 순환 코스 완성... 보행 약자층 배려한 탐방로·안전·편의 시설 등 설치

군산시 월명공원 내 월명호수를 보행 약자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무장애나눔길'이 열렸다.

16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은 총 3.03km의 월명호수를 순환하는 코스로 2016년에 만들어진 기존 무장애나눔길과 연결해 완성했다.



군산시 월명공원 내 월명호수를 보행 약자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무장애나눔길'이 열렸다.

'무장애나눔길'은 일반적인 숲길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 약자가 장애 없이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길을 말한다.

경사도를 8% 이하로 낮추고 길의 폭을 1.5m 이상으로 넓혀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게 목재 데크로 만든 길이 많지만, 일반 숲길을 이용한 길도 있다.

사실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20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와서상당 기회를 노리며 2022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다시 도전했고, 결국 2022년 10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은 총 6개의 사업 구간으로 나눠 사회적 약자 누

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와 안전·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여기에 팽나무 숲 광장, 편백숲 쉼터, 전파데크 등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해 휴식 공간 및 포토존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탐방로의 경사도는 최대 8% 이내로 낮추고 전동 휠체어 충전기, 장애인용 테이블, 안전난간 등 보행 약자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나눔길 노선에 큰 나무(대경목)가 위치했을 경우 식재할 시공 및 노선을 변경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월명호수 만수위도 고려하여 탐방로를 상향 계획함으로써 집중호우 피해 및 안전사고에도 대비했다.

서광순 복지환경국장은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이 보행 약자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군산시 공원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추후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유기동물 보호센터 방문

### 한동연 부의장 · 소길영 의원, 삼기면 보호센터 운영현황 등 점검

익산시의회 한동연 부의장(어양동),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은 용제동에서 삼기면으로 이전한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전 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17일 현장 방문에 나섰다.



동물 보호센터는 공간 협소 및 열악한 환경 등이 계속 지적돼, 이달 삼기면 황금로 342-17(서두리 756-19)로 확장·이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동연 부의장과 소길영 의원은 이전한 보호센터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각 격실을 둘러보면서 "유기동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현재 보호센터에서 지내는 개 290마리와 고양이 40마리의 유기 동물들의 건강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입양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익산시 동물 복지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용제동에 위치했던 유기



익산시는 지난 4일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역사회재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 익산시,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 주간 개별형 · 주간 그룹형 기관 지정... 대상자 일대일 돌봄 제공

익산시가 최종중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첫 시행한다.

익산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최종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개별형·그룹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중중 발달장애인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행동을 보이며 장애 정도가 극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기존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을 주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 기관, 다가치사회적협동조합은 주간 그룹형 기관으로 지정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

사 및 전복지지도 서비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중 낮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이나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은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가족들의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상임위, 제1회 추경예산 3억3550만원 삭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에서 3억3,5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나중대)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예술단 연주회 녹화제작 및 송출 2,000만원 전액 삭감 △기타공연 보상 1,560만

원 중 780만원 삭감 △정기연주회 공연비 9,6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1,240만원 중 620만원 삭감해, 4개 사업 총 6,400만원을 삭감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중대)에서는 △군산역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사업 7,000만원 전액삭감(건설과) △공공자전거 구매사업 8,000만

원 중 4,000만원 삭감(건설과) △군산개장초등학교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1억원 전액삭감(건축경관과)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500만원 전액삭감(농정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6,000만원 중 3,150만원 삭감(동물정책과) △유실수 식재공사 2,500만원 전액삭감(농촌지원과) 6개 사업 총 2억7,150만원을 삭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등록 장애인 1000여명 대상 실태조사

### 생활 실태 · 장애정도 등 조사... 재활서비스 제공 기초 자료 마련

익산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등록·관리 중인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달부터 생활 실태와 장애정도, 건강 상태, 보호자 현황 등 4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역사회재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머리

를 맞댔다. 지역사회재활협의회는 원광대학교 재활의학과,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익산 물리치료협회,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재활협의회 위원들은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질적 향상, 재활사업 평가 기준 마련 등 효율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효율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의료·보건 전공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익산시가 의료·보건분야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18일 청년시청에서 지역 의료·보건전공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의료·보건계 상황으로 취업에 대한 위기가 높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설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 치과병원, 원광대학 한방병원, 익산병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등 총 7개 의료기관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지역 의료·보건전공 청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비롯해 인사담당자가 직접 들려주는 채용 정보와 1:1 상담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 행사 한 달 전부터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와 연계해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의료기관별 사전매칭 작업을 추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보건소, '백일해' 환자 증가 · 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군산에서 올해는 지난 18일 0시 기준 환자 9명(전국 2,416명, 전북 36명, 군산 9명) 발생했으며, 주로 발생 연령대는 초등학교 중학생이며, 유행차단을 위해 군산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예방접종 독려 및 집단시설에서의 개인방역예방수칙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백일해 의심환자에게는 백일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군산시 의사회에 협조 요청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감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